“놀이도 즐기고 호국도 배웠어요”

현장르포 ‘랄랄라 나라사랑 피크닉’ 가보니

시립미술관 잔디광장 체험 프로그램 다채
태권도 시범공연·깡통열차 탑승 등 ‘호응’

“즐겁게 놀면서 호국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난 8일 광주시와 광주지방보훈청 주관으로 ‘랄랄라 나라사랑 피크닉’이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매주 광주시에서 ‘아트 피크닉’을 개최하는 시립미술관 일대에서 이번에 특별히 보훈청이 호국과 보훈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풀어내 아이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게다가 태권도와 의장대 시범단의 시범공연으로 아이들의 눈길을 끌었고, 페이스페인팅, 깡통열차 등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아이들의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다.

지난 8일 오후 4시 광주시립미술관 잔디광장 일대.

아직 피크닉이 시작되지 않은 시각, 잔디광장 입구에서 윤봉길 열사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한창 상영 중이었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처음 보는 흑백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부모는 아이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 옆으로는 이번 피크닉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깡통열차’ 탑승권을 얻기 위해 아이와 부모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깡통열차는 잔디광장 일대 중 짧게 한 바퀴 도는 코스였지만 보훈청에서 준비한 태극기 터널에서는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양손을 들고 ‘만세~ 만세~’를 외쳤다.

그렇게 열심히 만세를 외친 아이들은 열차가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부모에게 가서 양손을 들고 만세를 외쳤다며 자랑스레 말하기도 했고, 부모와 함께 열차에 탄 아이들은 다시 타고 싶다고 떼를 쓰기도 했다.

그렇게 깡통열차가 쉼 없이 아이들을 태우고 돌아다닐 때 메인 무대인 잔디광장에서는 ‘전무연구회’에서 준비한 태권도 시범공연이 한창이었다. 송판격파부터 춤을 추듯 태권도를 할 때마다 아이들은 열심히 양손바닥이 빨갛게 되도록 박수를 쳤고,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와 선물 쪽지가 적힌 종이를 캡슐에 넣은 작은 알 모양의 종이를 찾아오면 선물과 교환해주는 ‘보훈 보물찾기’, 나라사랑 페이스페인팅, 나라사랑 라인아트 체험, 빛고을 의장대의 특별공연 등 이날 저녁 8시까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다.

행사장을 찾은 민 모양(6)은 “오늘 깡통모양의 열차도 타보고, 얼굴에 태극기 모양도 그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면서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민양의 부모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와 태극기의 의미 등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같이 여러 체험을 하면서 아이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집에서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아이에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광주지방보훈청 주관으로 광주시립박물관 잔디광장에서 열린 ‘랄랄라 나라사랑 피크닉’에서 아이들이 깡통열차를 타고 태극기 터널을 지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광주보훈청 제공

광주보훈청 관계자는 “현충일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보훈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20개 시민단체 “영산강 보 해체하라”

승촌보 교량에 대형 걸개 걸고 기자회견

영산강 재자연화와 보 해체를 요구하는 광주와 전남의 시민단체가 지난 8일 승촌보 상단 교량 난간에 대형 걸개를 내걸었다.

9일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2009년 6월 8일부터 정확히 10년째를 맞은 이날 보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인 반대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며 “해마다 반복하는 극심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강바닥에 쌓이는 오니가 4대강 사업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권이 바뀐 뒤에야 국민여론을 수렴한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가 채택됐다”며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이 농업용수 이용과 환경 사안의 갈등으로 부추긴다”며 “보 해체를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문재인 정부는 오랜 물 과제를 해결하고 강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올해 2월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내달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농업용수 부족 등을 우려해 보 해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찬 기자

광주교육청, 비아중 고교 전환 승인

광산구 원거리 학생 통학 해소

광주 비아중학교가 오는 2023년 3월 비아고등학교로 전환된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법인 무양서원으로부터 ‘(가칭)비아고등학교 설립인가서’를 제출받았다.

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시설·설비 상황 등을 검토해 비아고 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개편을 위한 절차로 비아중학교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신입생을 4학급 규모로 배정하고, 이후 2021년부터는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비아고는 2020년 3월부터 5학급 신입생을 배정받아 2021년 10학급, 2022년부터 15학급(남 6·여 9학급) 375명 규모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비아중의 고교 개편으로 학교 설립이나 이설이 쉽지 않은 광산구의 고교생 원거리 통학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최두섭 행정예산과장은 “이번 비아고등학교 설립인가 승인으로 광산구 내 고등학생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 상무중 학생·학부모 연좌 농성

시교육청서 치평중 통합반대…집단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2년 만에 재추진하고 있는 학교 통폐합 사업이 학부모·학생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상무중 학생과 학부모 30여명은 지난 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학교 재구조화는 폐교나 다름없다”, “상무중 통폐합과 폐교를 결사반대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비대 측은 “2년 전에도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무산되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밀실 통폐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시교육청과 서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 시설과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입지는 인접한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합하고 흡수된 학교 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중은 1985년 개교 당시 30학급 규모로 지어졌으나 현재 13학급, 1991년 3월 개교한 치평중은 24학급 가운데 15학급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초반부터 벽에 부딪혔다. 학부모 등의 반발이 만만찮다. 상무중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로 조직화까지 이뤄졌다. 상무중 학부모 등은 학교 주변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시교육청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며 반발하고 있다.

2017년에도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두 학교 통합을 추진했다가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상무지구, 금호지구 등 택지의 학생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학교가 남아도는 현상이 생겨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조기철 기자

“뭐 타는냄새 안나요?”

도리깨

○…아파트층간 소음을 견디지 못해 이웃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방화미수 혐의로 경찰서행.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모씨(45)는 최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자신의 집 위층 집 대문 앞에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선풍기를 올려놓고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인 위층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나와 불을 끄면서 미수에 그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체포 당시 최씨에게선 술 냄새가 났고 소음에 대응해 천장을 두드리기 위해 붕대를 감은 망치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안도의 한숨. /이나라 기자

회사 사정상, 신창동 근린상가, 급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

문의. 010-6834-7400